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남미 권역

나의 남미 여행기 고대 잉카 문명의 도시, 페루

정운주

퇴직 후 2개월 간 배낭여행의 꽃, 남미를 여행했다. 그 중 남미 대륙을 횡단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의 긴 여행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그리고 ‘어떤 매력이다’라고 딱히 정의할 수 없는 여행지, 페루를 여행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젯빛 도시에 도착하다

페루의 수도인 리마는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절벽 위의 도시이다. 페루의 하나뿐인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로서, 비행기를 타고 타국에서 입국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인 셸이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는 여기가 정말 고대 잉카의 영광을 간직한

페루의 수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뿌연 젯빛 뿐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중충함! 여행의 시작이라 폼은 설렘과는 다르게 이 곳은 당최 우중충함 밖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리마의 첫 인상은 그랬다.

사실 남미는 겨울인 건기(4월~10월)와 여름인 우기(11월~3월)로 계절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대륙이지만, 한반도의 6배, 세계에서 19번째로 큰 면적의 페루는 도시별로 위도와 고도차이가 심해서 여행을 하는 도시마다 기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특히 내가 여행했던 8월의 페루는 비가 내리지 않고 겨울임에도 온화한 날씨 덕분에 정말 여행하기 좋은 적기로 알려져 있지만, 해안가 도시인 리마는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 때문에 도무지 화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무척 아쉬웠다.



정말 어렵게 본 리마의 파란 하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마에서 청량한 하늘을 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한다. 내가 리마의 푸른 하늘을 보게 된 것도 페루를 떠나기 직전 단 하루였는데, 같은 도시라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날이 정말 좋았다.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 지어졌던 구시가지와 해안가를 따라 지어진 각종 쇼핑몰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신시가지의 조화가 참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또한 리마에서는 신선한 해산물로 만

드는 페루 전통음식 '세비체(ceviche)'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식당이 많고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세비체는 생선과 해산물을 신 과일에 절여 먹는, 해산물 샐러드 같은 싱싱함이 특징인 음식이다. 그 위에 페루산 달달한 고구마와 알갱이가 커다란 옥수수를 곁들이는 게 전통인데, 나는 이 해산물 요리를 해변이 아닌 사막마을 이카와 쿠스코에서 처음 접했다. 해산물이 거의 없는 세비체를 접하다 리마에서 처음 오리지널 세비체들을 접하고 나니 뒤통수를 한 대 세계 맞은 기분이었다.

코카콜라의 기원

쿠스코에 도착하면 그 높은 고도에 숨이 턱하고 막히게 된다. 쿠스코는 잉카의 잃어버린 공중 도시 마추픽추(해발 2,500m)와 무지개산 비니쿤카(해발 5,000m), 에메랄드 빛 우만파이 호수(해발 4,200m)까지 여러 투어의 중심지로 보통 뽀뽀한 투어 일정 속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해발 3,000미터가 넘는 고산 도시로써 도착 후 걸음걸이부터 숨을 쉬는 것까지 천천히 고도를 몸에 적응시켜야 고산병을 앓지 않는다.

여행에서 만난 동행 중 한 명은 고산병을 정말 심하게 앓아서, 두통과 발열부터 설사의 가벼운 증상을 넘어 급성 결막염까지 나타났다. 이럴 때는 딱히 방도가 없고 그 고산지대를 벗어나야 증상이 없어진다. 이를 옆에서 본 나는 코카 잎을 주머니 속에 잔뜩 저장하고 정말 열심히 씹었다. 고산지대에 사는 페루인들은 코카나무 잎으로 우려낸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고 코카캔디를 먹으며 고산지대를 트레

킹할 때는 잎을 생으로 씹어서 고산병을 예방한다. 이 방법은 듣기에 상당히 민간요법 같지만 실제로 코카는 고대 남아메리카 원주민에서부터 내려오던 특효약이다. 코카나무 잎은 약재와 마취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 성분을 추출해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바로 마약 '코카인'이 되었다. 그래서 투어를 진행 중이거나 쿠스코 곳곳을 돌아다니면 코카 잎이 말려진 상태로 놓여있거나, 말린 잎을 티백으로 상용화하여 팔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코카콜라의 이름을 들여다볼까? 바로 코카나무 잎의 '코카'에서 추출한 성분과 콜라나무 열매인 '콜라'가 만난 음료로 본래 자양강장제가 그 시초다. 그 중 코카가 주로 재배되는 곳이 바로 페루인데, 막상 페루에서는 이 코카콜라 음료가 먹히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 코카 잎을 넣어 만든 잉카콜라가 있기 때문이다.

미니버스, 콜렉티보를 이용하자!

남미 여행은 버스로 시작해서 버스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와 같이 큰 도시에는 지하철 노선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남미의 소도시들은 철도나 기차가 운행되는 곳이 적어 오로지 버스 노선에 기대어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남미 여행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차를 타본 것이 마추픽추로 가는 페루레일(또는 잉카레일)이었다. 이 노선은 여행자들에게 관광비용을 명목으로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노선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있어 연착은 기본

이고 덜컹거리는 승차감이 나에게 크나큰 고난의 길을 선사해 주었다.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들은 택시를 통해 흥정을 해서 가기는 비싸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관광사를 끼고 투어버스로 가기엔 너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콜렉티보이다. 콜렉티보는 페루 뿐만이 아닌 남미 소도시에서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버스로 12인용의 승합차를 일컫는다. 특이한 문화 중 하나는 이 콜렉티보는 내가 탄다고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현지인과 여행객들이 하나 둘 모이

고 만차가 되어야 출발을 하기 때문에 콜렉티보(Colectivo)이다. 현지인이 이용하여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자유롭고 여유롭게 여행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문화인 것 같다.

콜렉티보를 타고 쿠스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광활한 안데스 산맥이 펼쳐지고, 곳곳에는 설산이 마음을 웅장하게 한다. 쿠스코 주변 여러 유적지 마을의 입장권은 따로따로 구매하려면 비싸지만, 3일 입장권/10일 입장권으로 구매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콜렉티보를 타고 여유롭게 주변을 살피며 유적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